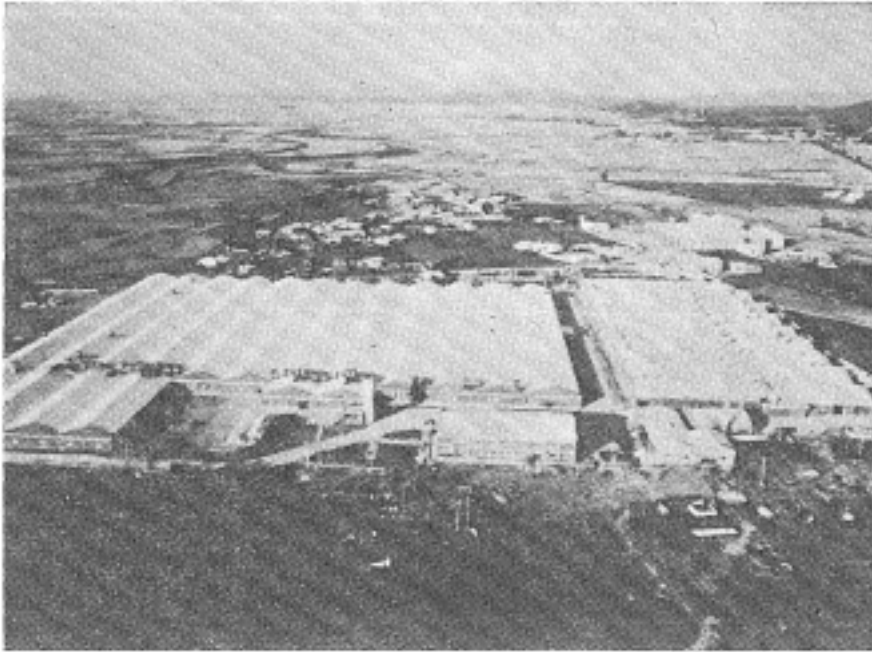


충남방직(주) 예산공장



온천의 명소 온양과 도고를 지나면 시야가 탁트이는 예산 넓은 벌에 충남 방 예산공장의 굴뚝이 유난히 높아보인다. 예산읍 창소리에 자리잡고 있는 본 공장은 대지 55,699평, 건평 22,727평에 국내 최신설비를 갖추고 2,000여 종업원이 오늘도 “나보다 우리(협동), 남보다 먼저(솔선), 오늘보다 내일(희망)”이라는 신조아래 보다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여념이 없다.

회 사 개 황

충남방(주)는 1969년 국안방(주)으로부터 방적기 28,000추를 인수하여 창업 계 된 이래 놀라운 속도로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76년 직기 500대와 정방기 132,080추를 증설 함으로서 총시설 규모는 정방기 273,876추, 직기 1,700대로 국내 굴지의 대규모 방적회사로 군림하게 되었으며 원간사류 2,99M/T과 직

포 475만 yds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수출 신장면에서는 지난 76년도에 오천만불을 수출하여 전년도 대비 60%의 증가율을 보였고 이에 힘입어 금년도에는 사류 35,463M/T과 직포 5,700만 yds의 생산계획에 수출 목표를 1억불로 책정하여 이의 초과 달성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최근 설비와 생산성 향상

현재 정방기 132,080추, 직기 930대를 가동하고 있는 본 공장은 전공정 고속 신기의 동시에 공장설계 및 기계배치가 생산성 향상을 위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다.

혼타면기는 OHARA의 것으로 Auto Doffing 장치, Feeding Control장치를 모두 채용하고 있으며 증설분으로 설치예정인 혼타면기는 오픈엔트 방적용으로 Chute System을 채용할 것이라 한다. 소면공정에서는 Fly comb 대신 Stripping Roller를 채용하였고 Doffer rpm을 20이상 올릴 수 있어서 타기종의 1.4배를 생산할 수 있다는 DN-S Card기를 대량 도입 보유하고 있으며 오픈엔드 방적용으로 Tandem Card를 15대 가동하고 있다. 코머 공정은 HOWA Catory-K Type를 설치하고 있는데 분당 220nip까지 고속운전이 가능하고 헤드간의 부동이 적고 설치 및 관리가 용이하다고 한다. 연조는 ISHIKAWA와 HOWA가 대부분이며 조방에는 TOYODA FL-6(16"×16")과 HOWA MAX ROVE를 설치, 스핀들 rpm 1,000으로 운전하고 있어 고속화와 패키지 대형화를 기하고 있으며 특히 조방기의 1인당 담당자수가 6~10대라고 하니 조방효율이 얼마나 좋은가는 설명을 부연하지 않아도 되겠다.

정방공정에서는 TOYODA (Ry)와 HOWA(UA-27)의 2기종을 설치하고 있으며 특히 TOYODA BD-200형 오픈 엔드기를 10대 도입 가동하고 있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모든 공사이 최선의 목표로 삼고 있는 고속화와 더불어 품질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절을 감소를 본 공장은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폴리에스터/면 혼방사 45's의 방출에서 13,500~14,500rpm으로서 사절율이 0.5% 이하로 운전하고 있어 전방공정의 품질관리가 얼마나 철저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입증해 주고 있다. 금년내로 Ingolstadt OE 정방기를 12대 추가 설치예정이어서 OE사 중변수 개발, OE사 용도개발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다.

권사공정에는 모두 MURATA의 것으로 매 드럼마다 전자식 스라브 캐처가 부착되어 있었으며 특히 MURATA #11 Auto winder 89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Auto winder는 다소 경제성이 문제가 되겠으나 품질의 고급화와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도모코자 타사보다 대량 도입하였다고 하며 1,100ypm으로 효율적인 권사를 행하고 있었다.

정경 및 가호기는 KAWAMOTO(日)의 것이며 정경속도 500ypm, 가호속도 500ypm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930대의 직기는 SAKAMOTO의 것으로 185ppm으로 운전 중이며 이 중 300대 도비 장치를 채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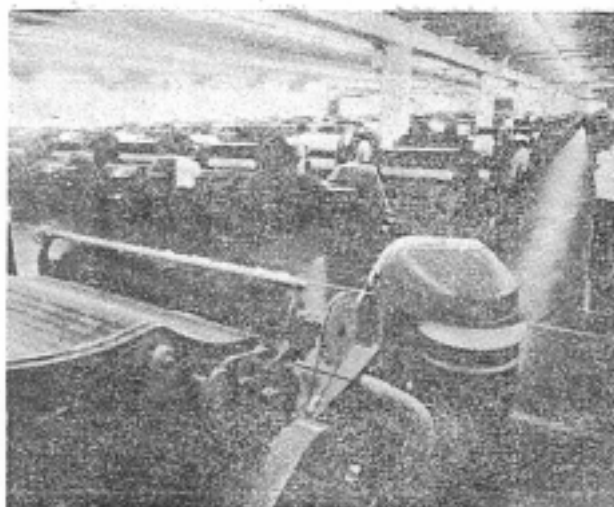
QC 활동을 통한 품질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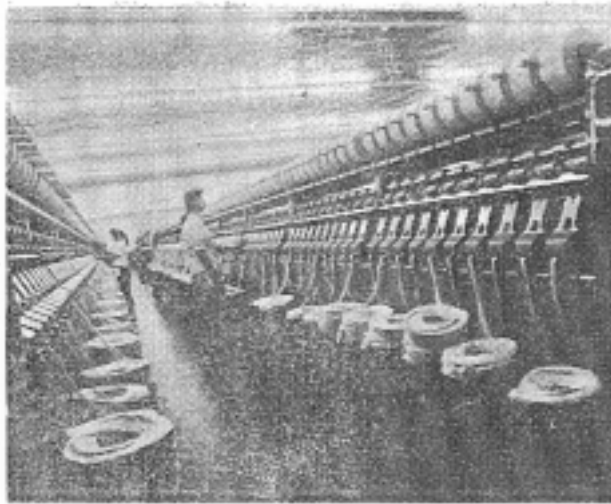
우수한 기계를 설치하고 있는 이 공장의 관리자들은 기계에 못지 않게 품질향상과 생산성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76년 11월에 공장을 준공 가동한 후 극히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안정패도에 올라 놀라운 정도의 생산성을 보이는 것은 처음 가동 때부터 “실은 기계가 끊는 것이 아니라 작업자가 끊고 있는 것이다”라는 관념 전환을 위한 교육과 QC활동을 통한 작업자의 노력 덕분이라고 본 공장 김해곤 기술이사는 설명하였다. 특히 지난 76년 공업진흥청으로부터 자체검사제도를 허가받

아 품질보증에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QC활동을 더욱 강화시켜 이미 자체 QC 경진대회를 5회나 개최하였으며 그 성과는 사뭇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QC활동 사항은 현재 167개의 QC서클이 활동하고 있으며 공장 내부 곳곳에 게시된 각종 관리도, 요인분석도, 전 종업원의 앞 가슴에 단 “전사적 품질관리”라는 슬로건 등은 품질관리의 열의와 수준을 실감케 한다.

그간 수행된 QC 활동의 테마를 분류해 보면 품질향상부문 20%, 원가절감 및 자원절약 부문 35%, 능률향상 및 생산성 향상이 35%, 안전부문 7.5%, 인간관계개선이 2.5%로 종합 분석되었다 한다. 이와 같이 QC활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테마는 그 결과를 표준화하여 품질관리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품질관리와 병행하여 검사활동 역시 차원 높은 경지를 개척하고 있다. 즉 다른 공장과는 달리 전무이사 직속하에 검사과를 두어 철저한 자체검사를 행하고 있으며 검사 카드에 의하여 중간제품으로부터 완제품에 이르는 모든 공정에서 결점 요인을 분석 통계하여 Feed back 시키는 등 QC 활동의 기초자료로 삼고 있다 한다.





다양한 복지 대책

복지대책으로 무엇보다 제일 먼저 손꼽히는 것은 중학교 과정의 충남방적 실업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충남방적 실업전수학교의 운영이다. 특히 기술학교는 중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충남방 여자기능직 회원만을 입학시켜 1일 4시간씩 3부제로 3년간 전액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회사 개발을 위하여 운영되는 전수학교는 종업원의 자녀 및 취학 희망자에 한하여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기업의 이윤을 회사에 환원한다는 이 종성사장의 큰 뜻의 일부로 종업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큰 기

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은 현대식 여자 기숙사와 복지회관 시설로서 기숙사는 2,8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총 280평 규모의 복지회관은 음악실을 겸한 면회실, 매점 시청각실, 도서실, 회의실, 미용체조실, 새마을 금고 등을 구비하고 있어 사원들 특히 기숙사생들의 생활에 많은 편리를 주고 있다.

한편 3층으로 된 사원 아파트 16동을 건립, 226세대의 직원들에게 무료로 입주케 하고 있으며 새마을 장학회를 운영하여 중학교 이상의 종업원의 자녀에게는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면 일정한 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다. 그 외 사내 배구장, 탁구장, 정구장, 축구장 등 각종 구장과 운동 시설도 마련하고 있다. 또 종업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사우회”, “우리사주조합” 등이 있어 각종 경적금을 지급하는 외에 친선체육대회를 비롯한 정구회, 낚사회, 조기회 등 각종 친목 활동을 하고 있다 한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기라성 같은 면방공장들 속에서 가장 늦게 출발한 충남방 예산공장이 가동 1년도 못되어 상위 수준에 오른 것은 유능한 경영진과 의욕에 찬 중간 간부 그리고 성실로서 실천을 앞세운 종업원의 땀의 결실임에 틀림없다. 오늘과 같은 노력, 품질향상을 위한 열의가 본 공장에 충만하여 있는 한 충남방적 예산공장은 국내 면방업계의 선도적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충남방적 예산공장 여러분의 노력을 치하하며 더욱 더 노력하여 보다 훌륭한 세계적인 공장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